

《飲水行程曆》에서 언급된 중국 도서 고찰

- 木山 李基敬의 견해를 중심으로 -

이 경 훈*

<目次>

- | | |
|---------------------|-----------------|
| I. 서론 | 2. 부정적 견해로 본 도서 |
| II. 중국 도서에 관한 견해 양상 | III. 결론 |
| 1. 긍정적 견해로 본 도서 | |

I. 서론

《飲水行程曆》은 木山 李基敬¹⁾이 1755년 동지사행에서 서장관 신분으로 燕京(지금의 北京)에 다녀오면서 그의 여행 사행을 기록한 여행록이다. 《음빙행정력》에는 연경에서 접하게 된 중국 도서와 그 저자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정리한 기록들이 여럿 보인다.

이에 본 논문은 《음빙행정력》에서 언급한 중국 도서와 그 저자에 대한 목산의 견해를 위주로 정리한 뒤 이를 통해 조선 중기 지식인의 중국 도서에 관한 장악 능력의 일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동시에 동일한 콘텐츠에 대해 목산 전후 시기의 조선 지식인들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지 비교 고찰하여, 조선의 중국 도서와 중국학에 관련된 시각 변화 양상을 고

* 전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BK21PLUS한중문화 화이부동(和而不同)연구 창의인재 양성사업단 기금교수

1) 이기경(李基敬: 1713~1787) 본관은 全義이며, 자는 伯心이고, 전주 오목대 아래에 산다하여 雅號를 木山이라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후 ‘이기경’을 ‘목산’으로 통일하여 칭하고자 한다.

찰해보고자 한다. 이는 한 개인의 연행록을 통해 그 시기 중국 도서와 학문이 조선에 전파되는 시기별 양상을 부분적으로나마 파악해 볼 뿐만 아니라, 개개 중국 도서가 어떻게 조선에 영향을 주었고, 조선의 상황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수용되었는지에 관한 양상을 고찰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II. 중국 도서에 관한 견해 양상

목산은 1755년 12월부터 1756년 1월 사이에 연경에 머물면서 여정 중에 접하게 된 도서들에 관해 자세한 설명과 함께 자신의 견해를 정리한 기록들을 《음빙행정력》에 남겼다. 목산은 사행 기간 동안 각종 경로를 통해 중국 도서를 접하고자 부단히 노력하였으며 어렵게 수집된 중국 도서 관련 자료와 내용에 대해 비판적 시각의 끈을 놓지 않았다.

목산이 본격적으로 중국 도서에 관해 기록하기 시작한 것은 신년하례 행사가 끝난 뒤부터이다. 목산은 동지사행의 가장 큰 임무이자 사행외교의 핵심인 신년하례를 무사히 마친 후, 사행 여정으로 인해 악화된 건강상태에서도 胥班을 시켜 서점에서 도서 목록을 구하여 관심있는 중국 도서들을 빌려보았다.

목산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여정 중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봐야 할 도서와 인물에 대해서도 미리 계획을 가지고 사행을 왔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漢族부흥운동의 태두였던 呂留良의 문집을 구하기 위해 수소문하였다. 그러나 문집을 구하는데 실패하자 《大義覺迷錄》을 통해 여유량에 관한 자료를 보충하려 했고, 《三魏全書》를 통해 여유량과 같은 復明의 후예들에 대한 同病相憐의 情을 대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가치관으로 관철된 목산이 긍정적인 가치로 평가해 놓은 책들은 당연히 ‘中華’의 문화를 견지하고 주자학과 관련된 도서와 명나라 유민의 사적에 관계된 책들 위주가 되었을 것임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청대에 유행하던 학문 경향인 陽明學에 관한 도서에도 또한 깊은 관심을 보인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다만 그 관심은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程朱理學으로 관철된 성리학자인 목산이 양명학을 기치로 내건 도서를 비판적 시선으로 바라보았던 것은 지극히 당연했다. 다만, 부정하고자 했던 도서와 학문의 내용을 폐기처분하지 않고 자신의 연행록에 상당수 기록한 점은 목산 당대에는 물론 후대에 이르기까지 학문과 사상적으로 다양한 역할과 의미가 부여될 수 있다.

1. 긍정적 견해로 본 도서

목산은 程朱理學의 나라라고 불리워도 손색이 없을 조선의 지식인으로서, 특히 老論계 洛論적 성향이 짙은 인물로 평가받는다. 書狀官이라는 직책의 의무와 새로운 견문의 기록이라는 연행록 본연의 성격을 기본으로 출발한 《음빙행정력》은 사실상 公의인 성격을 벗어나기 어려운 제한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연행록의 제목을 ‘飲水’이라는 단어로 정한 것을 볼 때, 외교사신으로 떠나는 자신의 상황을 대변하고 對明義理로 자신의 색채를 정한 뒤, 反淸意識으로 무장하여 청에 동화되지 않으리라는 私의인 결의로 여정을 시작했음이 보인다. 따라서 목산이 기록한 중국 도서에 관한 주된 견해는, 대명의리가 농후하고 崇明反淸의식이 투철하며 小中華思想을 견지한 인물다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목산이 《음빙행정력》에서 언급한 도서류에서 긍정적 평가를 내린 중국 도서들은 다음과 같다. 여유량의 《四書講義》, 魏兆鳳의 《三魏全書》, 宋藤珙의 《經濟文衡》, 馬端臨의 《文獻通考》, 史以遇의 《三才圖會》 등이 있다. 또한 직접적인 소개를 거치지 않는 않았으나 錢牧齋의 《儒學集》도 여유량의 字를 설명하면서 언급되었다.

(1) 《三魏全書》

1756년 1월 17일자 기록을 살펴보자.

처음 내가 길을 나설 때 송나라 명나라의 유민의 사적을 찾아오려고 했으나 끝내 얻지 못하였더니, 남경의 하급관리가 소장한 서목 중에 《三魏全書》가 있었으니, 바로 명나라 말기 강서인 徵士 魏兆鳳과 그의 아들 祥·禮·禮가 동지들과 조카 敬士·昭士 등과 더불어 易堂에서 은거하며 강의하고 저술하였으니 이를 《삼위전서》라고 하였다. 책 속에는 유민들의 일을 기록하되 말이 비감하고 강개하니, 깃털 하나로 족히 온전한 봉황의 문체를 볼 수 있었다. 북경의 서점에는 구할 수 없어 강서 출신 서반에게 비밀히 겨우 한쪽을 구입하였으니 모두 28본이었다. 아, 위씨는 그 또한 만촌의 유파였던가 보다.²⁾

상기에는 1월 17일자 기록에서 《삼위전서》 관한 내용만을 뽑아 정리하였지만, 사실 17일자의 기록은 《음빙행정력》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일자이다. 이 날은 國子監, 大成殿, 雍和宮을 방문했었기 때문에 이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들을 상세히 기록해 놓았다. 그리하여 귀국한 뒤 영조를 알현하여 보고가 이루어 질 때, 《英祖實錄》³⁾에 영조가 청나라 황제의 거동을 묻고, 태학의 석고에 대해 묻는 내용의 기사가 있는데, 영조의 질문에 대한 답변 자료 대부분이 17일자의 기록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목산은 《삼위전서》의 내용이 명나라 말기 강서인 魏氏 집안의 父子들과 친지들이 易堂에서 은거하며 강의하고 저술한 내용임을 확인하고는, 자

2) 본 논문의 한글 인용문은 이영춘 외 6명, 《1756년의 북경이야기-이기경의 《음빙행정력》역주》를 인용했으며, 한자 원문은 “이기경, 《木山藁》영인본을 인용했다. 페이지 구분은 생략하고, 날짜만 명기하여 본문에 인용하였다. 이후 번역문과 원문의 서지정보는 생략하기로 한다.

始吾臨行0000000要覓宋明遺民事蹟，以來而終不得。南京胥班所莊書目中，有《三魏全書》乃是明末江西人魏徵士兆鳳，其子祥·禮·禮與同志之士，及其子姪敬士昭士輩隱居講學於易堂有所著述，謂之《三魏全書》。《三魏全書》中有記遺民事語多悲切慷慨，一羽足見全鳳文章。北京冊肆中無所有，密購於江西胥班，厘得一帙合二十八本。噫！魏氏其亦晚村之流歟。(원문에서 ‘0000000’ 부분은 먹물로 지워져있다.)

3)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 《영조실록》 87권, 영조32년 4월 5일, 임인 2번째 기사.

신의 연행기록 끝자락에 슬며시 위씨일가를 만촌의 유파로 여기고자 하는 바람까지 기록에 넣었다. 그리고는 그 문장에 대해서는 “一羽足見全鳳文章(깃털 하나로 족히 온전한 봉황의 문체를 볼 수 있었다)”이라는 극찬을 쏟아 부었다. 그 당시 조선은 대명의리를 지키기 위해 大報壇을 세워 명나라의 임금을 위해 제사를 지내고, 丙子胡亂의 치욕을 씻기 위해 切齒腐心하며 청나라에 대한 불복의 뜻을 고수하였다. 이에 목산도 동병상련하듯 명나라 유민들에 관해 기록된 도서를 보고 ‘봉황의 문체’라고 칭찬하였으니, 그 또한 승명반청의식이 투철한 무리의 일원임을 스스로 분명히 하였다.

다른 연행록에서 《삼위전서》가 언급된 작품은 《靑莊館全書》가 있다. 다만 《청장관전서》에서도 직접적으로 《삼위전서》에 관한 소개가 아니라, 《四庫全書》를 소개하는 내용에서 언급된 정도로, 명나라에 절의를 지키다 죽은 인물로 錢謙益, 屈大均, 金堡, 黃道周, 劉宗周 등을 언급하였고, 《사고전서》에서 어구를 지운 책으로 《亭林集》과 《三魏集》 등이 있다고 소개하였다.⁴⁾ 《사고전서》에서 어구를 지운 이유는 그 도서가 淸을 부정하고 明을 숭상하는 내용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사고전서》에 포함되지 못한 도서는 승명반청의식이 투철한 인물들에겐 오히려 반드시 제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으로 연결되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 목산은 이 도서를 구입할 만한 대상의 책으로 여겼음이 틀림없다.

필자는 이외에도 목산이 《삼위전서》를 구입할 만한 가치 있는 책으로 여긴 데에는, 鄭太和의 역할이 일정 작용을 하였을 것으로 본다. 줄고(2017)⁵⁾에서 목산의 연행록과 정태화의 연행록이 제목으로의 연계성을 가진 ‘음빙록류’라는 공통점이 있음을 설명하고, 목산이 《삼위전서》에 관해 의미를 부여했던 계기도 바로 정태화의 영향이었을 것으로 서술했다. 박세욱(2007)⁶⁾은 明을 멸망시킨 淸에 조공 사신으로 파견되었던 정태화와

4)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이덕무, 《청장관전서》 제56권 양엽기 3, 사고전서.

5) 이경훈, 〈《음빙행정력》小考〉, 《중국학논총》 제56집, 2017, 206쪽.

6) 박세욱, 〈客家 文人과의 첫 만남: 陽坡 鄭太和와 魏際瑞〉, 퇴계학과유교문화

명의 유민 魏際瑞의 만남에서 그 둘의 공감대는 송명반청의식이었을 것이며, 송명반청의식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 없었던 정태화는 위제서의 문집을 조선으로 가져왔어도 그 존재를 드러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18세기 말 이덕무에 의해 재조명된 三魏의 문학을 송명반청의식이 주가 된 것이 아니라 經世致用적 학문에 중심이 실린 실학자의 부산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목산은 자신의 연행록에 명백히 《삼위전서》의 존재를 조선에 알렸으며, 위씨일가가 조선의 지식인들과 송명반청이라는 같은 대의명분을 지닌 존재였음을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⁷⁾

(2) 《路史》와 《經濟文衡》

다음으로, 1756년 1월 18일자 기록을 살펴보자.

송나라 때 여릉 사람 나비가 지은 《노사》를 보았다. 초천왕, 초지왕, 초인왕으로 시작하여 四大(道, 天, 地, 王)를 서술하였으니, 그를 일러 초삼황기라고 하였다. 천황씨와 지황씨는 중삼황기라고 하고, 그 아래로 九頭紀, 徇蜚紀를 통하여 대통을 잇도록 하였으니 그 또한 억측이 심하였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세계의 바깥은 그대로 두고 논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황제 이전을 누가 능히 보았으며, 누가 능히 알리오? 《鳳洲綱鑑》과 《歷代捷錄》 등의 도서는 대개 모두 《노사》에서 이어받은 것이다. 《노사》가 첫 권에 秋山詩와 覽史隨筆 19조로 서문을 삼은 것은 무슨 의미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가히 볼 만한 말이 있었다. 이원(李源⁸⁾) 사람인 송등공(宋藤珙)이 《朱子文集語類》를 채록하고 조목을 구분하여 《경제문형》이라 하였으니, 배우는 자가 살펴보기에 편리하니 책상에 둘 만하다.⁹⁾

제40호,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7년, 283~284쪽.

- 7) 이경훈 상계논문, 상기의 연구 과정을 통해 박세욱(2007)의 논문에서 서술했던 《삼위전서》의 조선 유입시기를 수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 8) 번역서 195쪽에서 “이원(李源) 사람인 송등공(宋藤珙)이 《朱子文集語類》를 채록하고 조목을 구분하여 《經濟文衡》이라 하였으니”라고 되어있는데, 번역문만을 보아서는 《경제문형》의 編者가 ‘宋藤珙’으로 오인될 수 있는 부분이 보이며, 지역 이름도 이원(李源)이 아니라 무원(無源)으로 오기되어 있는바, 그 부분을 수정하여 “宋代 무원(無源) 출신인 藤珙”라고 번역해야 한다고 본다.

18일자의 기록에는 《노사》에 관해서는 긍정과 부정의 견해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부정의 견해로는 “억측이 심하였다”라고 하였고, 긍정의 견해로는 “가히 불만한 말이 있었다”라고 하였다. 《경제문형》에 관해서는 “배우는 자가 살펴보기에 편리하니 책상에 둘 만하다”라는 긍정의 견해를 피력했다.

《노사》는 宋代 나비가 選한 서적으로 국내에서는 연구된 자료가 거의 없었다. 아마도 正史로 평가받지 못해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 듯하다. 중국에서 진행된 《노사》연구에 따르면, 《노사》에 인용된 고적들이 많이 산실되어 《노사》중에 보존되는 자료들이 산실된 고적의 고감과 輯逸 작업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신화연구방면에 있어서 자료 가치가 더욱 특별하다고 인정¹⁰⁾받고 있다고 하였다.

목산은 “《노사》가 첫 권에 〈秋山詩〉와 〈覽史隨筆〉 19조로 서문을 삼은 것은 무슨 의미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가히 불 만한 말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노사》에 관해 직접적으로 긍정적 견해를 보인 것이라기보다는 노사 序에 놓인 〈추산시〉와 〈람사수필〉 19조를 불만하다고 평가하였다는 것이 더욱 정확하다. 따라서 필자는 〈추산시〉와 〈람사수필〉의 어떤 내용을 불 만하다고 말했는지 알아보려고 했다. 그러나 이에 관한 자료 뿐만 아니라, 《노사》에 관한 연구조차 국내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다. 다만 중국 논문 중에 〈추산시〉와 〈람사수필〉이 언급된 논문이 있었다. 宋鳳林(2012)¹¹⁾은 《노사》의 문헌적 가치를 소개한 논문에서 일본 와세다대학

9) 觀宋廬陵羅泌所著《路史》. 始自初天皇·初地皇·初人皇, 敍四大謂之初三皇紀. 天皇氏·地皇氏謂之中三皇紀, 其下九頭紀·循蜚紀因提禪通紀之說, 其亦繁矣. 古人云, 六合之外存而不論, 皇王以前誰得而見之, 誰得而知之耶. 《鳳洲綱鑑》《歷代捷錄》等書, 蓋皆祖諸《路史》也. 其首卷弁以賦秋山·覽史隨筆十九條, 亦未詳何意, 而略有可觀語. 宋婺源滕珙採《朱子文集語類》區分條目, 名曰《經濟文衡》. 學者便於考覽可置諸可案也.

10) 宋鳳林, 《《路史》的文獻價值》, 天津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2, 摘要.

11) 宋鳳林, 같은 논문, 19쪽: 筆者又見一種日本早稻田大學所藏版本, 亦為四十七卷, 分裝二十冊, 扉頁左上題“賦秋山(即明代仁和吳弘基)彙評”, 右下題“摹宋本重鐫, 西山堂藏板”. 之後分別是金堡《序》·費焯《別序》·羅泌《路史序》和

소장본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秋山’은 明代 人和 시기의 吳弘基라는 인물이며 宋本을 저본으로 하였고 “金堡〈序〉, 費煒〈別序〉, 나비〈노사序〉와 〈賦秋山람사수필〉”를 구분하였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朱仙林(2012)¹²⁾은 나비의 《노사》 판본 고증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중, 明 崇禎年間に 吳弘基의 化玉齋에 보관된 《重訂路史全本》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두 논문 모두 명대 판본 자료에서 ‘吳弘基’라는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일치한다. 그러나 朱仙林(2012)은 명대 판본 연구자료 이외에도 청대의 《노사》 판본을 소개하는 내용에서 ‘伯持 吳宏基’라는 인명을 등장시켰다.¹³⁾ 주선림의 연구에 따르면 목산이 연행을 다녀온 1756년 이전의 청대 판본에는 淸順治十三年(1656)吳弘基刻印《重訂路史本》과 乾隆元年(1736) 羅氏自刻本이 있으니, 목산은 그 중 하나를 보았을 확률이 높다. 따라서 필자는 목산이 ‘其首卷弁以賦秋山·覽史隨筆十九條’라고 기록하고 있으니, 목산이 보았던 노사의 판본은 淸順治十三年(1656)吳弘基刻印《重訂路史本》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왜냐하면 주선림의 羅玉藻刻本 설명에는 목산이 언급한 ‘추산시’와 ‘람사수필’에 대한 자료가 없었으며 오홍기의 이름과 號가 다르게 표기되어 있기 때문이다.¹⁴⁾ 결론적으로 필자는 목산이 볼만했

《賦秋山覽史隨筆》. 其順序與《四庫》本相同, 但內容卻和原刻本無異, 輯有各家的評論.

- 12) 朱仙林, 〈羅泌《路史》版本考辨〉, 《古籍整理研究學刊》, 2012.
- 13) 朱仙林, 같은 논문, 31쪽: 淸乾隆元年羅玉藻刻本. 据淸于敏中《天祿琳琅書目》称: 按乾隆元年有泌裔孫玉藻重刻是書, 書前載明金堡序文, 称“伯持(吳宏基)妙年好古, 有《路史》之役, 校訛訂誤, 斯已精矣”云云. 考金堡, 人和人, 登崇禎庚辰進士, 玉藻刻是書獨列其序者, 似所刊即從吳本摹出, 然版式字畫不及此本(洪樞本)遠甚, 則知洪本遠在吳本之前, 惜玉藻未得見之也.
- 14) 朱仙林 상계논문 30쪽을 보면, 王重民이 《中國善本書提要》에서 주장한 ‘錢塘本은 吳宏基 摹宋本이다’라는 견해에 대해 주선림은 다른 의견을 내었다. 그 근거는 吳宏基는 승정년간에 《노사》를 판각하였으며, 吳宏基가 錢塘인이 아니라 仁和인이기 때문에 전당본은 명대 전당인인 洪樞本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부분에서 주선림 본인이 서술한 부분에서는 ‘吳弘基’라 표기하고, 왕중민의 인용문에서는 ‘吳宏基’라 표기했다. 게다가 청대 판본 淸乾隆元年羅玉藻刻本을 설명하는 내용에서 똑같이 주선림 본인이 서술한 부분에서는 ‘吳弘基’라 표기하고, 청대의 于敏中 《天祿琳琅書目》의 인용문에서는 또다시 ‘伯持(吳宏基)’

다던 ‘추산시’와 ‘람사수필’ 실질적인 내용을 찾아볼 수는 없었다. 게다가 상기의 내용이 본 논문의 연구 주제와는 다소 동떨어진 내용일 수도 있어 자세한 서술을 하는 것이 무리라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목산이 접한 《노사》본에 관한 자료가 《노사》판본 연구에 충분히 활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선림의 논문을 주의깊게 살펴보았다. 이후 목산이 접했던 《노사》 판본과 기타 내용에 관해 남겨진 의문점은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그리고 《노사》에 비유하여 함께 언급된 《鳳洲綱鑑》과 《歷代捷錄》은 “억측이 심하였다”라는 비판을 중심으로 부정적 견해로 본 도서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經濟文衡》은 주자학에서 매우 중요한 문헌총집으로, 송·원·명·청 4대에 걸쳐 많은 판본이 출현했다. 이 도서는 考亭의 후학들이 주희의 文集·奏劄·語錄 중에서 全文 혹은 短篇을 채택하여 분류 편집해 놓은 문헌총람 형식으로, 南宋의 과거시험을 위한 對策과 議論文을 작성할 때 참고하는 모범적인 문장으로 삼기 위해 편제되었다. 후에 유학자들이 주자사상을 이해하고 학습하기 위한 강령 및 宋代 제도를 판단하는 依據로 쓰이다가 南宋이후에는 대량으로 인쇄되어 유통되었다. 한국학DB에서 《경제문형》에 관한 기록은 《世宗實錄》, 《明齋遺稿》에서도 인용되었다. 또한

로 설명하였으니, 秋山과 伯持의 상관관계 및 吳弘基와 吳宏基의 차이에 대해서도 향후 정확한 작업이 필요하겠다. 朱仙林이 王重民이나 于敏中的의 문장을 인용하면서 吳弘基를 吳宏基로 오류 입력하였거나, 王重民이나 于敏中이 오표기한 원문을 주선림이 답습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그러나 宋鳳林의 논문에서는 “賦秋山(即明代仁和吳弘基)彙評”으로 표기하고 있기에 주선림의 논문에서 오류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잠정적으로 秋山은 명대 인화인 吳弘基로 기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現存明祖刻本, 據明朱之蕃爲喬可傳刻本作序云: “近歲洪都僅梓其半, 未睹全書. 錢塘舊版, 讐校未詳, 錯誤迭出.” 王重民先生在《中國善本書提要》中說: “朱氏所謂洪都不全本, 即萬曆三十一年張鼎思序刻本, 僅刻《前》《後》記. 錢塘本則指吳宏基摹宋本也.” 筆者認爲, 王先生將錢塘本指爲吳宏基摹宋本的結論不確. 理由有二: 第一, 吳宏基刻《路史》在崇禎年間, 且吳宏基爲浙江仁和人, 非錢塘人. 第二, 在喬可傳之前刻路史者, 僅有明嘉靖年間的洪梗和萬曆三十一年張鼎思, 而洪梗正是錢塘人. 故可知王先生誤將吳宏基作洪梗了.

《沙溪全書》에서 李復吉을 소개한 “李恒吉 및 李咸吉과 더불어 세상 사람들이 ‘朱門의 二滕’으로 칭하였다”라는 문장을 보면 조선에는 이미 滕珙과 滕璘 형제의 학문적 위상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중국의 《경제문형》에 관한 연구 중에, 呂振宇(2014)¹⁵〈《經濟文衡》版本述考〉와 羅積勇·張秋娥(2010)¹⁶〈《類編標註文公先生經濟文衡》編者考辨〉라는 두 편의 논문이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활용하여 목산이 접한 《경제문형》을 상고해 보면 목산이 접한 《경제문형》의 판본은 呂振宇(2014) 연구 중에서 보이는 淸乾隆四年(1739)楊雲服徽州刻本으로 가늠해 볼 수 있다. 목산이 《경제문형》을 소개한 원문에는 “宋婺源滕珙採朱子文集語類區分條目, 名曰經濟文衡”라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상기의 두 논문에서 인용한 〈程恂序〉의 첫 부분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羅積勇·張秋娥(2010)의 논문에서는 《경제문형》의 편자를 滕珙이 아니라 馬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논저는 《경제문형》의 편저를 대다수가 宋人 滕珙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은 《사고전서》의 館臣들의 설명에만 의거된 사실이며, 그 당시 《사고전서》를 정리했던 관신들은 증거자료로 보다 확실한 송대의 〈黃昇序〉와 〈馬括自序〉를 미처 보지 못하고 淸代의 〈程恂序〉만을 보고 추측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한 명대에 인쇄된 《경제문형》의 판본들은 도서 제작자와 판매자에 의해 馬括보다 유명세있고 인지도가 높은 滕珙의 이름을 빌어다 출판에 사용했을 것으로 추론하였다. 이렇게 출판된 등공의 《경제문형》을 淸代의 程恂이 보고 序를 달았을 것이며, 黃昇과 馬括의 序를 증거로 하여 《경제문형》의 편자를 등공이 아니라 馬括이라고 주장한 점은 매우 검토할 할 만한 연구라 하겠다.

15) 呂振宇, 〈《經濟文衡》版本述考〉, 中國, 歷史文獻研究01期, 213~227쪽, 2014. 《경제문형》에 관련된 대부분의 내용은 이 논문에서 인용하였음을 밝힌다.

16) 羅積勇·張秋娥, 〈《類編標註文公先生經濟文衡》編者考辨〉, 長江學術, 2010, 2, 143~147쪽과 47쪽 하단부분까지 포함.

(3) 《文獻通攷》과 《三才圖會》

1756년 1월 26일자 기록을 살펴보자.

송나라 마단림은 남도의 재상인 마정란의 아들이다. 원나라로 들어가서 포의가 되어 두우의 《통전》을 근본으로 해서 《문헌통고》를 저술하였다. 300년 지나서 왕원한이 요, 금, 원 및 명나라 전고를 묶었고, 근세 江都人 史以遇가 두 책을 합하고 이를 초하여 모두 일곱 상자를 만들었는데, 상세하고 소략함이 두루 갖추었으니 책상에 들만하였다. 《삼재도회》가 진실로 한만한 책이나, 역대 君臣圖像이 비록 칠훈(보통의 초상화)과는 모양이 다르지만 역시 비슷하게 상상하기에 충분하다. 또 초목과 조수의 형상에 박식하였다. 이것뿐만 아니라 백 년 동안 오랑캐의 털가죽을 입어서 문물이 씻은 듯 없어졌고 중국 관리의 위위는 다시 볼 수가 없는데, 이 책이 있는 것에 힘입어서 중화의 의례제도의 만분의 일이라도 상고 할 수 있으니, 어찌 다행스럽지 않겠는가! 그 중에 부인이 착용하는 봉관과 가계의 등속은 지금 살펴보고 시행할 수 있다. 아! 동방의 예의가 중화에 못하지 않는데 오직 부인의 髻子만이 오랑캐의 습속을 면하지 못하였다. 예를 좋아하는 집안에서는 혹 중화의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한나라 전체에 두루 행하지 않으니 매우 한탄스럽다. 역관 최시운에게 부탁하여서 봉관, 가계 건본을 찾아오게 해서 그것을 보니 책자에 그린 바와 흡사하므로 마침내 모두 사서 가져왔다.¹⁷⁾

위에서 언급된 중국 도서관련 자료로는 마단림, 두우, 왕원한, 사이우 등의 저자명과 《通典》, 《文獻通攷》, 《三才圖會》 등이다. 여기에서 《통전》은 中唐 憲宗때 杜佑에 의해 편찬되어 堯舜시대부터 唐玄宗 天寶

17) 宋馬端臨，南渡宰相廷鸞之子。入元爲布衣，本杜佑《通典》而著《文獻通攷》越三百餘年，王元翰續輯遼金元及皇明典故，近世江都人史以遇合二書，而抄之共爲七函，詳略備至可置丌茶也。《三才圖會》固是閑漫之書，而歷代君臣圖像，雖異七分之兒，亦足以想像彷彿。又多識於草木鳥獸之形，不特此也。百年瓊裘文物蕩然漢官威儀不可復見，而頗有此書得考。皇朝儀制之萬一庸非幸歟。其中婦人所着鳳冠假髻之屬，今可按而行之。噫！東方儀文中中華，而獨婦人髻子未免夷俗。好禮之家成有用夏者，而不能通行於一國，殊可歎也。屬譯官崔始運覓鳳冠假髻樣子，而觀之與册子所圖恰似。故遂并市來。

연간에 이르는 중국의 정치 경제·사회·문화의 각종 제도에 대한 연혁을 신고 있는 문헌으로, 鄭樵의 《通志》, 馬端臨의 《文獻通考》와 함께 ‘3通’으로 불리는 ‘역사 제도 사전’의 성격을 가진 문헌이다.¹⁸⁾ 《문헌통고》는 《太宗實錄》 태종 1년(1401)의 기록¹⁹⁾에서부터 출현되는 도서명으로 조선시대에 중국의 도서를 구입하려 할 때에 《문헌통고》를 참고하였다 고 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서이다.

《승정원일기》의 인조 26년 무자(1648) 8월 11일자²⁰⁾에 “《통전》과 《문헌통고》는 무릇 예(禮)를 의논할 때에 매우 요긴한 책인데, 증원의 서적이 산실된 지 오랜 세월이 지난 뒤인지라 더욱 구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북경에서는 그래도 구할 수 있을 것이니, 지난해 《大明集禮》와 《大明會典》을 구매해 올 때의 예(例)에 따라 해조로 하여금 절사(節使)의 사행을 따라가는 역관(譯官)에게 적절히 물건 값을 지급하게 하여 그로 하여금 편의대로 구하여 구매해 오도록 분부하여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와 같은 내용이 있다.

이로써 보건데, 《문헌통고》의 내용은 조선 ‘禮’의 기준이 되었는데, 조선은 唐宋의 예악을 본받았기 때문에 당송의 제도를 상세히 기술해 놓은 《문헌통고》가 조선의 예의 기준이 되는 도서가 되었다. 따라서 목산이 《문헌통고》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은 조선시대 지식인 관료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적인 내용으로, 가감없이 간단명료하게 해제를 해 놓은 것이었다. 다만 목산이 “책상에 들만하다”고 평가한 도서는 《문헌통고》가 아니라 서적명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史以遇가 초편한 《文獻通考抄編》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내용은 《통전》과 《문헌통고》는 편수가

18) 안정훈, 〈中國文學과 目錄學에서의 類書의 자리〉, 《중국문학》 40권. 2003, 55~56쪽.

19)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조선왕조실록·태종실록》 태종 1년 신사 1401년 8월 22일. “예왕의 일을 어찌 본받으랴? 《문헌통고(文獻通考)》를 상고하는 것이 가하다.”

20)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승정원일기》 인조 26년 무자 1648년 8월 11일.

매우 많아 일반 지식인이 소장하는데 그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를 함하여 소략함을 갖춘 《문헌통고초편》은 그 당시 지식인들의 소장가능성을 높여주었음을 시사한다.

《삼재도회》에 관해서 목산은 작자와 내용을 해제해 놓지 않고 곧바로 그 도서의 성격을 “閑漫之書”라고 평가하였다. 필자는 ‘閑漫’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를 부정적 견해로 분류해야하나 고민했으나, 이 단어가 오히려 《삼재도회》의 圖說百科辭典적 느낌을 정확히 전달해 주고 있음에 집중하였다. 《삼재도회》는 명 중기 이후 주자학의 폐단으로 인하여 양명학이 대두되고 학문에 대한 실증적인 접근방법이 거론되던 시기에 官方에서 제작 간행한 것이 아니라 私家에서 간행된 도서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도서이다. 따라서 문화존재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中華를 구분 짓는 조선의 ‘小中華思想’의 시각으로 볼 때, 오랑캐의 문화로 인해 중화의 문화가 사라져 감을 한탄하던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삼재도회》는 중화의 의례제도를 그림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음에 대해 지대한 가치를 부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조선에서 유행하던 髷子를 오랑캐의 습속이라 비판하고, 《삼재도회》에 나와 있는 것과 비슷한 鳳冠과 假髻의 견본을 구매해 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의복에 대한 오랑캐의 평가를 매우 궁금해 했으며, 현지인들의 의복 및 전족 머리모양에 대해 관심이 깊었고, 명나라의 유적이거나 유물을 보면 매우 감격하였다. 청나라 서적과 학술적 흐름에 대해 비판적 언급을 서슴치 않았으며 이러한 언급을 통해 자신의 대청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었던 것이다.

(4) 《溫公全集》과 《列國志》

《음병행정력》에서 처음으로 도서를 구입한 기록은 1755년 12월 24일의 기록²¹⁾에서 볼 수 있다. 조선 사신들이 연경으로 사행을 올 때마다 그

21) 持冊子書畫，請買者，簇至而率皆索價太高，只買溫公全集列國志兩冊，而換以數十扇。云曾見淵翁詠豐潤書肆，云中原已絕讀書，種摠爲朝鮮人檢閱。今問之別無

여정 중에 책자와 서화를 가지고 와서 파는 사람들에게서 적당한 도서를 구입하는 경우를 기록해 놓았다. 목산이 수십 자루의 부채를 주고 구입한 책은 《온공전집》과 《열국지》였다. 이 기록은 책을 구매하는 양상이 시작되는 부분이다. 필자는 목산이 《온공전집》과 《열국지》에 관해서는 직접적인 견해를 드러낸 문장도 없고 도서의 내용을 소개한 기록도 없지만, 직접 구매하였다는 기록을 통해 긍정의 견해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긍정적 수용의 연구 범위 안에 두 도서를 포함시켜 추가로 살펴보기로 한다.

《온공전집》은 북송의 정치가이자 역사가인 司馬光의 작품집이고, 《열국지》 또한 명나라의 문학가 馮夢龍이 지은 역사소설로, 목산의 시선으로 보자면 그 두 작품은 中華로 인정 할 수 있는 宋代와 明代의 작품들이었기에 가까이 값을 치르고 구매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목산이 《열국지》에 관해 견해를 직접적으로 피력한 기록은 없으나 목산의 구매 심리를 이해하기 위해 정우봉(2014)²²⁾의 연구 중, 강세황의 《열국지》에 관한 평가를 참고로 살펴보았다.

열국지는 속되어서 볼 것이 없다. 그러나 그 삽화 한 권만은 수레, 복식, 기구의 제도를 옛것을 상고해 그렸으므로 자못 볼 만하다. 중국 사람을 따를 수 없는 것이 이와 같다.²³⁾

정우봉(2014)은 “강세황이 본 것은 삽화가 삽입된 《열국지》였다. 이들 삽화를 통해 강세황은 춘추전국시대의 수레, 복식, 기구의 제도를 상고해 볼 수 있는 유용성을 강조하였다. 소설 자체의 내용에 대해서는 비판적이

書肆，而每年使行時，賣書者不絕。淵翁之言，必以此也。豐潤玉田之間，槩多故家爲民者云。

22) 정우봉, 〈조선후기 지식인의 陳繼儒 수용과 그 의미〉, 《韓國漢文學研究》 제 57집, 2014, 257쪽.

23) 姜世兒, 《豹菴遺稿》 권5(장서각 소장본), 「題列國志」 “列國志, 陋俚無足觀, 獨其圖像一卷, 車服器用制度, 考古而爲之, 頗可觀. 中原人不可及如此.”

면서, 옛 제도를 상상 속에서 복원케 하는 삽화의 정확성에 대해서만큼은 긍정적이었던 것이다.” 라고 했다. 필자가 정우봉의 연구를 이 부분에서 인용하는 이유는 목산이 《삼재도회》를 평가하는 부분에서 유사한 견해를 가졌었기 때문이다. 목산은 “《삼재도회》가 진실로 한만한 책이나, 이 책이 있는 것에 힘입어서 중화의 의례제도의 만분의 일이라도 상고할 수 있으니, 어찌 다행스럽지 않겠는가!”라고 평가하며 《열국지》를 구매한 이유도 이와 일맥상통하는 점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2. 부정적 견해로 본 도서

목산은 사행 기록 작업에서 새로운 견문에 대한 주관적 감흥과 내적감정 표출 또한 과감히 기록했으며 새롭게 접하는 문물과 환경에 대해 기존 지식과의 비교분석을 꼼꼼히 실행하였다. 이는 서장관이라는 신분으로서 최선을 다해 사행을 수행해야 하는 공적인 입장과 새로운 문물을 접할 수 있는 특수한 기회를 통해 개인적 사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사적인 목적을 동시에 실현하고자 하였다고 볼 수 있다. ‘小中華思想’에서 비롯된 청에 대한 경멸과 혐오의 감정도 목산의 의해 확인된 후의 감정이었으며, 명나라 유민의 서적을 찾는 것도 조선이 가진 대명의리론에 힘을 신고자 하는 확인의 과정이었을 것이다. 또한 성리학의 복잡한 이념적 시비논쟁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학문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계기를 마련한 것도 어쩌면 본 사행에서 접하게 된 중국 도서에서 연유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먼저, 목산이 《음빙행정력》에서 언급한 도서류에서 부정적 평가를 내린 도서들은 다음과 같다. 李贄의 《李卓吾遺史》, 李紱의 《朱子晚年全論》, 毛奇玲의 《毛西河集》 등이 대표적이다.

(1) 《李卓吾遺史》

먼저, 1756년 1월 3일자 기록을 보자.

이날 다시 삼소음을 복용하니 감기가 제법 나아졌다. 서점에서 도서목록을 구하였는데, 서반을 시켜서 빌려보았다. 그 가운데에 《李卓吾遺史》가 있었는데, 이른바 世紀라고 한 것은 각각 표제를 붙이기를, 東周, 西周, 燕, 齊, 魏, 趙, 韓, 楚, 秦을 九國分爭이라고 하였으며, 진나라로써 비로소 ‘천하를 통일하였다’고 말하였다. 그 밖에 ‘필부가 수창하였다’느니, ‘영웅이 초창하였다’느니, ‘때를 타서 나라를 회복하였다’느니, ‘신성한 자질로 왕조를 창건했다’느니, 하는 등등의 제목을 붙여, 그 번거로움을 말할 수 없었다. 陳勝, 田橫, 王莽, 公孫述의 등속도 또한 세기에 열거하였다. 그 외 열전 가운데에 孟子와 明道는 덕업을 닦는 유신이라 하였고, 伊川과 朱子は도를 실천한 유신이라 하면서, 모두 보통의 유학자들 중에 함께 두었으니, 범례를 정한 것이 무질서하여 족히 볼 것이 없었다.²⁴⁾

목산의 《이탁오유사》에 대한 평가는 맹자, 이천, 주자를 보통의 유학자들과 함께 분류하여 두었음을 통렬히 비판하며, ‘범례가 무질서하여 볼 가치가 없다’라고 기록했다. 농민반란 지도자 진승, 반란자 전횡, 정치가 왕망, 군웅 중 한사람인 공손술과 같은 부류들은 世紀에 나열하였음도 불구하고, 맹자, 정명도, 정이천, 주자를 列傳에 분류해 놓은 것도 모자라, 여러 일반적인 유자들과 같은 수준으로 나열해 놓았으니, 주자학적 존명의식이 투철한 목산의 가치관으로 당연히 ‘불만한 것이 못되는’ 도서로 평가 받은 것이다. 이처럼 목산의 취향과 관심에 따른 해제 내용은 조선지식인들이 중국 명·청의 도서들을 수용하는 방식을 짐작케 해준다.

그러나 이탁오(李贄)는 유교적인 권위에 맹종하지 않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와 행복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던 인물로서, 공자에 이어 주희가 만든 거대한 주자학적 사상체계에 얽매이지 않고, 기존 세력에 저항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한 진승, 전횡, 왕망, 공손술과 같은 개혁가들을 世紀의

24) 是日再服蔘蘇飲, 感氣頗鮮, 求書目於冊肆從胥班, 借觀其中有李卓吾遺史, 所謂世紀各爲標題, 以東西周燕齊魏趙韓楚秦謂之九國分爭, 以秦始謂之混一諸侯, 其他匹夫首倡英雄草創乘時復國神聖開基等, 號不勝其煩, 陳勝田橫王莽公孫述之屬亦列世紀, 其外列傳中孟子明道則曰德業儒臣, 伊川朱子則曰行業儒臣, 而并置於群儒之中, 凡例胡亂不足觀也.

인물로 선정하였다. 이탁오의 이러한 분류는 이들이 맹자, 정명도, 정이천, 주자와 같은 유학적 사상가들보다도 역사분류의 계층상에서 보다 상위층에 나열하여 이들을 주목해야줘야 함을 역설한 셈이다.

조선의 다른 개인문집에서 이탁오를 언급한 경우를 살펴보면, 이의현과 이덕무의 견해를 찾아 볼 수 있었다. 李宜顯은 《陶谷集》에서 “陽明과白沙는 이단의 학문으로 문장을 지었는데, 이 중 양명의 글이 더욱 맑고 시원하니, 신학은 마땅히 배척해야하나 문장에 있어서는 취할 만하다. 이탁오의 기궤함에 이르러서는 양명에서 말미암아 위로 올라가 더욱 제멋대로 자신의 뜻을 펼친 자이니, 이 세대 대가의 문집이 마땅히 한 파가 되어야 한다.”²⁵⁾고 기록해 놓고 있다. 이의현은 洛論 종장 金昌協의 제자로서 유연한 화이관을 가진 인물 중 하나로 연구되어있다.²⁶⁾ 상기의 견해도 李緯의 제자인 목산보다는 다소 유한 중화관이나 화이관적인 평가를 내린 듯하다. 또한 청대 문학 상황에 면밀히 이해하여, 학파적 견해를 떠나 청문에 그 자체를 보고자하는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보아 비교적 수용적 입장을 취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이탁오에 관해서는 ‘奇詭하다’느니, ‘제멋대로’라는 견해를 드러낸 것을 보면 이탁오가 다소 도를 넘은 문장가라는 견해를 엿볼 수 있었다. 李德懋는 《靑莊館全書》에서 “거짓된 일을 행하는 것 ‘허위를 말하는 것’ ‘학문이 정도(正道)가 아닌 것’ ‘잘못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바로 명 나라 때의 이탁오·顔山農·何心隱·鄧豁渠의 무리가 이에 해당한다.”²⁷⁾라고 평가했다. 이 문장이 실린 〈作淫聲異服章〉에는 주로 죄인에게 형벌을 적용하는 방법이 수록되어 있는데, “허위를 행하나 견고하여 깨뜨릴 수 없으며, 허위를 말하면서도 변명하여 굽히지 않

25)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李宜顯, 《陶谷集》, 卷二十八: “陽明·白沙以異學爲文, 而陽明之文尤爽, 新學則當斥, 而文則可取, 以至李卓吾之詭怪, 由陽明而騰上益肆者也, 此三集當爲一派.”

26) 김미순, 《〈庚子燕行雜識〉를 통해 본 李宜顯의 淸 文物 認識》,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27)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李德懋, 《靑莊館全書》, 제7권, 禮記臆1, 王制.

으며, 그 학문이 정도가 아니건만 지식이 해박하고 잘못을 아름답게 꾸며서 여러 사람들을 의혹하게 만드는 자는 죽인다(行僞而堅, 言僞而辯, 學非而博, 順非而澤, 以疑衆, 殺)”라고 주가 달려있으며, 왕자의 도리에 마땅히 금해야 할 것들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문장의 순서를 보아 ‘거짓된 일을 행하는 것’이 이탁오에 관한 평가로 보이는데, 이러한 평가는 이덕무의 학문적 견문을 통한 《예기》의 재해석으로, 이 문장에서도 역시 이탁오는 금기의 인물로 평가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朱子晚年全論》

1756년 1월 6일자의 기록을 살펴보자.

李紱이 지은 《朱子晚年全論》은 한바탕 웃음거리도 못되었다. 스스로 지은 서문에 이르기를 “주자와 陸象山(陸九淵)의 학문의 초기에는 다른 것과 같은 것이 반반이다가, 중엽에는 다른 것이 적고 같은 것이 많았으나, 말년에는 부절을 합친 것처럼 서로 일치되었다. 상산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자의 의리의 불변과 맹자의 ‘잃어버린 마음을 찾으라’는 뜻을 굳게 지켰다. 주자는 일찍이 불교 석가와 도교 노자에서 배회하였고, 중년에는 경서의 章句를 연구하였으며, 늦게서야 비로소 ‘一心’을 구하였다. 상산은 그의 만년 정론을 듣지 못하였으나, 양명선생(왕수인)에 이르러서 그것을 뽑아 책 한편을 만들었다. 지금 주자대전 중에는 무릇 만년에 학문을 논한 글로써 년월을 고가할 만한 것이 많게는 357조에 달한다.”고하였다. 또 말하기를, “천하 사람이 晩年の 朱子를 배우고자 한다면 마땅히 불가함이 없으니, 주자를 배우는 것은 곧 육상산을 배우는 것이다.”하였으니, 대개 이불은 육상산을 추종하는 자이다. 그의 학문이 그릇되었음을 스스로 알아서, 반드시 주자를 끌어당겨 같은 것처럼 하였으니, 장주가 걸핏하면 공자를 빙자하여 자기 학설에 무게를 둔 것과 같다.

그는 말하기를, “주자를 배우는 것은 육상산을 배우는 것이다.”하였으나, 스스로 구차한 지경에 들어갔다. 또 그가 인용한 여러 설들은 모두 증거가 되기에 부족하니, 예를 들면, “子靜(육구연의 字)은 무엇을 들으면 곧장 사람을 가르쳤다.”든지 “독서하면서 강학을 하였다”든지 하는 말들은 더욱 개탄스럽다. 자정은 ‘道問學’을 전폐하였으므로, 주자가 평상시에 병통으로

여겼다. 주자는 ‘사람을 가르치고 학문을 강독한다’는 말을 들으면, 혹시나 그가 잘못을 크게 깨달았을까 하여 기뻐하였고, 심지어는 여러 벗들에게 알려 주기까지 하였으니, 성현의 한조각 公心은 본디 이와 같은 것이다. 이불이 만약 “육상산이 만년에 배움을 모두 버리고 주자에게 돌아갔다고 말하였다.”고 하였다면, 오히려 괜찮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도리어 “육상산이 시종 주자와 같았고, 만년에야 비로소 그름을 깨달았다.”고 하였으니, 얼마나 틀려먹고 방자한가! 또 ‘鵝湖之會’에서 육상산의 논리를 인용하면서도 10에 7,8의 말은 빼버렸음에도, 죽히 상산이 당초에 禪佛敎의 논지를 장황하게 설파했음을 볼 수 있다. 10가운데 비록 3을 남겼지만, 어찌 이단이 됨을 면할 수 있겠는가! 상산이 주자가 조금 영납하였다는 말을 듣고 가만히 스스로 기뻐하였으니, 여기에서 대개 우리 도는 과연 훼손할 수 없고, 이단은 끝내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만촌은 육상산의 학문을 공격하는 데에 대단히 힘을 기울였다. 그의 《四書講義》를 보면 말이 양명의 무리에 미치게 되면 반드시 ‘良知家놈들’이라고 지목하였던 것이다.²⁸⁾

1월 6일자 기록에서는 이불의 《주자만년전론》이 언급되었다. 왕양명은 《주자만년정론》을 지어 주자와의 간극을 줄이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왕양명의 주장은 청대 학자들에게까지 지속되며 논란이 되어 왔는데, 그중 청대의 이불은 ‘육왕학’의 입장에서 《주자만년전론》을 저술하였다.

28) 觀李紱(雍正時人, 號穆堂)所著《朱子晚年全論》不滿一笑. 其自序云, 朱陸之學, 早年異同參半, 中則異少同多, 晚則符節相合. 象山自始至終確守孔子義利之卞, 孟子求放心之旨. 朱子早徘徊於佛老, 中鑽研於章句, 晚始求之一心. 陸子不及聞其晚年定論, 至陽明先生抄爲一編. 今詳考大全集中, 凡晚年論學之書, 確有年月可據者, 多至三百五十七條云云. 又曰, 欲天下人學晚年之朱子, 宜無不可, 學朱子卽學陸子也. 蓋緩視陸子也. 而自知其學之非, 必欲援朱子以同之一, 似莊周動輒籍重孔子其云學朱. 所以學陸自歸苟且. 且其所引諸說多是未足爲證者, 如子靜聞却教人, 讀書講學一段尤可嘆. 子靜之全廢道問學, 朱子尋常病之, 及聞教人講讀之語, 喜其或有悟悔, 而至告諸朋友, 聖賢一片公心本自如此援也. 若曰子靜晚年蓋棄所學歸於朱子云云, 則猶之可也. 而今反謂陸子終始如一朱子晚始覺, 非何其謬戾放恣之甚也. 且其所引鵝湖氣勢十去七八之語適, 足見象山當初張皇禪學處十分中, 雖餘三分何得免爲異端耶. 其聞朱子略加怒遇, 則窃窃然自以爲喜於此. 蓋見吾道之, 果不可毀. 而異端之終不能勝也. 呂晚村攻陸學甚力, 見其《四書講義》, 語及陽明之徒, 必目以良知家矣.

즉 청대 양명학자인 이불은 양명학을 옹호하고 육구연의 사고를 주희의 사고에 맞추어 양명학이라는 철학적 입장에서 주자학을 사유했던 사상이었다. 왕양명이 《주자만년정론》을 저술하여 자신의 주장이 주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였으나, 고증이 바르지 않아 많은 학자들로 부터 비판을 받자 이에 이불은 고증학에 입각하여 왕양명의 《주자만년정론》 저술 작업을 계승하며 주희의 만년 글을 모으고 그것을 정리해 내 《주자만년전론》을 지은 것이다. 주희와 육구연의 사상이 만년에는 같았음을 주장하는 통일된 양명학자들의 논의에 대해 이불 또한 “주희와 육구연의 학문은 초기에는 같고 다른 점이 반반이었고, 중기에는 다른 점이 적고 같은 점이 많았으며, 말기에 이르러서는 서로 일치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을 피력한 《주자만년전론》에 대해 목산은 ‘웃기는 사안조차 되지 못하며(不滿一笑)’, ‘얼마나 틀려먹고 방자한가(何其謬戾放恣之甚也)’라고 일축했다.

《18세기 연행록기사집성》²⁹⁾에 정리된 도서류를 살펴보면, 18세기 연행록 중에 직접적으로 《주자만년전론》이 언급된 적은 없었다. 다만 18세기 후기 무렵 1778년 이덕무와 1780년 박지원이 이불의 문집인 《穆堂集》을 언급하긴 하였다. 그러나 이덕무³⁰⁾는 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고, ‘우리나라에 없는 책과 희귀본만을 기록했다(只抄我國稀有及絕無者, 今盡錄之)’며, ‘문환재라는 책방에서 《목당집》을 기록했다(穆堂集, 以上文煥齋)’고만 언급되었다. 박지원은 《熱河日記·渡江錄》 1780년 7월 3일자³¹⁾에서 늙은 서당 훈장에게서 받은 서책목록에서 이탁오와 모기령 외 소품 70여종을 베껴놓았다. 《열하일기·鶴汀筆談》에서 “곡정에게 금서목록을 물어보자 鶴汀은 亭林·西河·牧齋 등의 문집을 등 수십 종을 쓰고는

29) 신익철 외 편역, 《18세기 연행록 기사 집성, 서적·서화편》, 경기도: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4, 577~593쪽.

30) 연행록전집 57, 신익철 외 편역, 《18세기 연행록 기사 집성, 서적·서화편》, 경기도: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4, 315~317쪽.

31) 한국문집총간 252, 신익철 외 편역, 《18세기 연행록 기사 집성, 도서·서화편》, 경기도: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4, 336~340쪽.

즉시 찢어버렸다.”³²⁾고 기록했다. 추가적으로 조선후기 학자들의 개인문집에서 이불이나 《주자만년전론》에 관해 언급한 경우를 살펴보았을 때 개인문집에서 언급된 경우도 연행록의 상황과 비슷했다. 즉, 목산 이전의 연행록에서는 《주자만년전론》에 대해 언급한 기록은 없었으며, 이덕무의 《청장관전서》와 이덕무의 손자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 《주자만년전론 敍》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었음을 찾아볼 수 있었다.³³⁾

목산이 자신의 연행록에서 언급한 도서들을 검토해보면, 자신의 학문적·사상적 성향과는 반대급부적인 요소가 강한 내용들에 대해 평가해 놓은 것도 다수를 차지한다. 이불이 《주자만년전론》을 1732년에 완성하였고, 1756년에야 목산에 의해 조선에 소개되었으며, 또다시 시간이 흐른 1778년에 이불의 문집인 《穆堂集》만을 서책 목록에서 이덕무와 박지원이 빼껴 놓은 것이 전부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승명반청의식이 투철한 성리학자 목산은 어쩌서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는 도서를 자세히 설명하여 기록하여 놓은 것일까? 굳이 목산 자신의 가치관으로 보기에다 구입하거나 소장할 만한 책도 아니며 이미 그 책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굳이 들여다보지 않아도 되는 도서에 대해 실제로 또다시 도서를 읽어 보고 자신이 알고 있던 내용을 재확인하는 과정과도 같은 작업에 공을 들인 이유는 무엇일까 반문해 보았다. 특히 이불의 《주자만년전론》에 대해서는 ‘잘못되고 방자함(謬戾放恣)이 매우 심하다’고 평가할 거면서 자신의 연행록에 상세하게 이불의 주장을 기록하였다. 연행록은 읽혀지기 위해 작성하는 기록이 대부분이다. 만약 목산이 기록한 연행록이 다른 조선 지식인들에게 읽히게 되면 이는 불손한 양명사상을 力說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록은 반대급부의 사상이 얼마나 오류가 많은지를 언급하여 자신의 주장을 오히려 쉽고 간단하게 서술하려는 逆說의 기법을 의도해 두지 않고서는 이처럼 상세히 기록할 의미가 없었

32) 신익철 외 편역, 상계서, 366쪽.

33)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오주연문장전산고(인사편)논학류(위학)주자만년정론변증설.

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목산 또한 반대급부적 사유를 기록하면서 어쩌면 자신의 사상적 가치를 재인식해 보려는 기회로 삼았던 것은 아닐까하는 추측도 가능하다. ‘복벌의식’이 철저한 이성적 사고에 ‘복학의식’에 눈뜨는 감성적 사고가 결합되어 극렬히 반대하면서도 이면에 새롭게 인지되어 버린 사유를 수정하는 것에는 미처 이르지 못한 채로 연행록을 기록하게 된다. 따라서 기존에 이미 세뇌되어 있던 이성적 사고는 새로운 가치추장에 당면한다 하여도 그것은 당연히 어리석고 가소로우며 무가치한 것들로 빠르게 치부되어 버릴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사실 이불은 양명의 《주자만년정론》이 지닌 불완전성으로 초래된 비판들에 맞서 불완전성을 극복하기 위해 보다 많은 고증 작업을 거쳐 《주자만년전론》을 완성하였다. 그러나 주자학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데 비해 육학은 약세에 처해 있었으며, 육왕학 자체에 결점이 많아서 비판을 받은 것보다는 당시 상황이 주자학을 중시하는 형세에서 비롯된 것이었기 때문에 주자학에 대해 정확히 인식해야 하고, 육왕의 학설을 정확히 파악해야 함을 주장했던 것이다.³⁴⁾ 그러나 당시 이불과 논쟁을 벌인 학자로 陳建과 여유량이 있었는데, 목산의 기록의 말미에 여유량의 관점을 빌어 양명학에 대해 강한 반감을 드러낸 것을 보면, 목산의 견해는 주자를 중주로 하는 학파적 입장을 벗어나지 못한 것은 분명한 듯 하다.

(3) 《鳳洲綱鑑》과 《歷代捷錄》

1756년 1월 18일자 기록에서 ‘억측이 심한’ 《노사》와 같은 류로 비유되면 언급된 《봉주강감》과 《역대첩록》은 부정적 견해로 본 도서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봉주강감》은 王鳳洲(王世貞)가 편찬한 것으로, 1732년 임자년에 이 의현이 쓴 《壬子燕行雜識》에 당시 연행 사행 중에 구입해 들어온 서적

34) 임홍태, 〈李紱의 朱陸觀 연구-《주자만년전론》을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37, 2013.

의 목록³⁵⁾에 들어있다. 《봉주강감》은 조선왕조실록에서 6번이 언급되었고, 《승정원일기》에서는 4번 언급되었다고 통계³⁶⁾되어 있는데, 이는 모두 영조시대의 기록으로 辨誣와 연관되는 도서로 언급되었다. 조선시대의 2차 종계변무를 행할 여부를 놓고 조정대신과 영조가 나눈 의견을 기록하였는데, 여기서 《봉주강감》은 野史로 평가받고, 《봉주강감》과 연계된 인물들은 모두 역적으로 몰리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서적이 된다. 《승정원일기》 영조 2년(1726) 병오 1월 17일자를 보면, “이번 청(淸)나라에 들어간 뒤에 野史인 《봉주강감》이나 《明記輯略》에서 보았다고 말해 저들이 어떤 경위로 보게 되었는지 힐책한다면 대답할 말이 없어서 일이 난처하게 될 것입니다. 宗系辨誣 때의 일을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그때 저 사람들이 매매를 금지한 역사책을 사 왔다고 꼬투리를 잡아 다방면으로 몹시 꾸짖어 벌금을 내는 일이 있기까지 하였습니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를 보면 《봉주강감》을 野史로 치부하며 《명기집략》과 더불어 聖祖(태조와 인조)를 무함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도서로 평가되어, 이와 연계된 인물들이 모두 치죄당했거나 죽임을 당했음을 알 수 있다. 또, 영조47년(1771)에 영조가 하교한 내용을 보면 “책장수가 都城 가운데 가득하며 사야 하는 것은 오직 《봉주강감》뿐인데, 그 가운데 유독 朱璘의 《명기집략》을 산 자에 대해서는 나라의 형틀을 빨리 시행하여 책 장수 8인은 흑산도의 종으로 삼게 하고, ‘綱鑑’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은 경조(京兆)로 하여금 한결같이 모두 불태우도록 하라.”³⁷⁾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鹿門集》에 달린 주³⁸⁾를 보면 “綱鑑은 주희의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의 體例를 채택하여 通史를 정리해서 편집한 책들을 말한다. 명나라 왕세정의 《綱鑑會纂》과 袁黃의 《袁了凡綱鑑》, 청나라 吳乘權의 《綱鑑易知錄》 등이 유명하다. 이 중에서 왕세정의 강감

35) 신익철의 편역, 상계서, 583쪽.

36)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승정원일기》.

37)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영조실록》 47년 신묘1771년 5월 26일.

38)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녹문집》 제11권/書/答從子杰丙申二月.

이 《봉주강감》으로 회자되면서 그 史斷이 사람의 意表를 찌른다는 호평을 받았는데, 강감의 사단이 매우 좋다는 녹문의 언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본문에서 말하는 강감은 《봉주강감》인 듯하다.”라는 내용이 있다. 이를 통해 《봉주강감》은 강감류를 대표하는 도서로 초기에는 인정받았지만, 《續鳳洲綱鑑》³⁹⁾의 영향으로 인해 《봉주강감》도 인조를 무함한 내용이 있는 책으로 동일시 된 듯하다. 다만 목산은 《봉주강감》이 《노사》의 영향을 받은 책이라고만 평가하며 태조와 인조에 대해 무함하는 내용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을 보면, 《봉주강감》의 야사적 성향만을 부정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역대첩록》은 顧充·周昌年·屠隆 等に 의해 편찬되었다. 盤古, 三皇五帝부터 明 神宗까지의 역대 황제의 世系와 治亂, 治迹에 대해 기록한 것으로 明 崇貞年間(1628~1643)에 편찬된 것을 조선에서 重刊(1727년)하였다는 기록이 있다.⁴⁰⁾ 조선에서 중간된 《역대첩록》의 해제⁴¹⁾에 따르면 “중국 상고시대부터 明 神宗까지 역대 帝皇의 世系와 治亂·治迹의 기록으로 明 崇貞年間に 編纂된 것을 조선 영조 연간에 목판본으로 간행한 역사서이다.” 또한 《역대첩록》의 가치를 “조선 후기 정통론의 입장에서 중국사를 서술하였던 본서를 다양한 판본으로 간행한 점은 당시의 성리학적 역사의식을 잘 보여준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평가는 나온 근거는 책의 범례만 보더라도 三國 중에서는 蜀漢을 정통이라고 기술하고, 吳·魏는 제외하였으며 南北六朝는 北朝를 제외하고 南朝만을 기술하였다. 그리고 宋

39)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승정원일기》 영조 2년(1726) 병오 1월 9일, 주-4를 참조하면, “《속봉주강감(續鳳洲綱鑑)》은 명나라 곽언박(郭彦博) 등이 찬집하였는데, 한국문집총간 192집에 수록된 조문명(趙文命)의 《학암집(鶴巖集)》 권6 <연행일기(燕行日記)>에는 이 책에 인조를 무함한 내용이 많이 들어 있다고 하였다.

40)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http://archive.history.go.kr/>)의 사료건 DJB004_00_00R0000_007, 수집정리번호 D09120294, 顧充·周昌年·屠隆 等이 편찬하였고, 상기의 내용으로 해제되어 있다.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korea.ac.kr/>)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41)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http://jsg.aks.ac.kr/>고서, 《역대첩록》해제.

에 대해서 기술하였으나 遼와 金은 外夷에 수록함으로써 정통론적인 입장을 보였기 때문일 것이다.

상기의 자료에 따르면, 《봉주강감》과 《역대첩록》은 시기적으로 목산이 연행 사행을 떠나기 전부터 조선에서 이미 접해본 도서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봉주강감》, 《역대첩록》과 《노사》와의 상호관계성을 정립할 수 있었을 것이며, 목산의 중국 도서 간의 이러한 평가는 조선 지식인이 중국 역사서에 관한 장악력이 어느 정도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역사서에 조선의 위치를 독립적으로 정립하고자 노력하였고, 중국이 朝代가 바뀌면서 이루어졌던 역사에 관한 我田引水적인 진술에 대해 냉철하고 명확히 대처하고자 했던 것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여긴다.

(4) 《毛西河集》

다음으로, 1756년 1월 25일자의 기록을 살펴보자.

모서하의 문집을 보았다. 서하의 이름은 奇嶺으로 蕭山人이다. 명이 망하고 난 후, 學宮에서 3일을 곡하고 《辨亡論》을 지어서 그 뜻을 보였다. 그러나 西陵의 의병에는 참가하지 않았으며, 머리를 깎고 승려의 옷을 입고 산속에 절로 숨어들었다. 또 怨家를 피하여서 깊이 숨어 나타나지 않았다. 강희 17년(1678년, 조선 숙종 4년)에 制科를 개최하니 兩浙의 巡撫와 福建의 布政司가 서로 모기령을 천거하였다. 이에 부름에 응하여 시험에 합격하고 上卷에 들어 翰林檢討를 제수받고 《明史》를 찬수하다가 병을 핑계로 관직에서 물러났다. 경집과 문집 여러 권이 있고, 《주역》이나 卜筮의 이치에 밝았다. 그러나 《辨忠臣不徒死文》을 지은 것은 아마도 그가 의병에 응하지 않은 뜻을 변명하고자 한 것이나, 스스로 이전 왕조의 신민으로서 나라가 망하고 임금이 죽는 것을 목격하고서도 마침내 과거시험에 나가서 청나라의 관직을 맡았으니, 대의를 이미 잃어버린 후이니 그 나머지가 어찌 죽히 볼 게 있겠는가?⁴²⁾

42) 觀《毛西河集》西河名奇嶺, 蕭山人. 皇明亡, 哭學宮三日, 作辨亡論. 以見其志.

이기경이 언급한 《모서하집》은 조선 후기에 접어들면서 다수 언급되기 시작된다. ‘毛西河’ 또는 ‘毛奇齡’ 등이 언급된 시기를 검색⁴³⁾해 보니, 李德懋 《靑莊館全書》,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丁若鏞 《與猶堂全書》, 洪良浩 《耳溪集》, 金邁淳 《臺山集》, 蔡濟恭 《樊巖集》, 申綽 《石泉遺稿》, 朴齊家 《貞蕤閣集》 등에서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시기적으로만 따져 보았을 때 목산이 연행 사행에서 접한 내용을 소개한 것이 가장 이른 시기임을 간접적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周懷文(2010)에 따르면, 청대학자들의 모기령에 대한 평가⁴⁴⁾는 포퓰이 많이 나뉘었다. 宋學에 불만이 있는 학자들인 錢泳, 李天馥, 李塨, 邵廷采, 王孝詠 등은 모기령의 학문에 동조했으나, 정주리학을 정통 학문으로 인정하는 王孝詠, 全祖望, 羅有高 같은 학자들은 주자를 비판하는 모기령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지는 것은 당연했다. 특히 전조망은 모기령에 대해 풍자와 비난을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전조망의 이러한 견해는 청대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四庫館臣들의 평가는 조금 달랐다. 주자학을 비평하고 송학을 냉철하게 평가하고자 했던 사고관심들은 모기령의 문장을 사고전서에 인용함으로써 송학과 정주리학을 측면적으로나마 돌파하고자하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받는다. 凌廷堪, 阮元, 焦循 등과 같은 학자들에게 모기령의 漢學은 인정받기 시작한다. 특히 완원의 평가는 모기령의 학술과 실학의 연계성을 이야기하여 모기령을 ‘實學之端’으로 여기게 만들었다. 장태염은 완원의 평가를 부정하고 전조망의 평가에 동조했다. 모기령의 인품에 대한 부정적 견해로 인해 전조망의 평가에 동조했으

而不應西陵義旅之召, 屠首髮衣緇毳山中. 又避怨家深藏不出. 康熙十七年, 開制科兩浙巡撫福建布政司, 互薦奇齡, 乃應召及試列上卷援翰林檢討, 纂修《明史》, 乞病歸. 有經集文集摠幾卷, 明於周易卜筮之理. 然所著「辨忠臣不徒死文」. 蓋欲自明其不應義旅之意, 而自以前朝之民目見國破君亡, 畢竟赴試做官於清國, 頭顱已失餘何足觀也.

43) KRPIA, <http://www.krpia.co.kr>에서 ‘모서하’를 검색하면 102건이 검색되는데, 이를 작자명과 도서명을 정리한 것이다.

44) 周懷文, 《毛奇齡研究》, 중국산둥대학, 박사학위논문 참조, 2010.

며, 劉師培는 선배들의 평가를 인용하는 범위를 넘지 않았고, 《清史稿》는 완원의 평가 색채와 비슷했다. 梁啓超는 초기에는 긍정의 평가를 내리다가 나중에는 ‘학자의 도덕’이 결여됨을 가지고 부정적 평가로 변화했다.

주희문(2010)에서 언급된 모기령에 대한 조선학자들의 연구는 그 시기가 대부분 중국의 乾嘉時期에 해당되며, 모기령의 경학·문학·운학 등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이덕무와 정약용을 들었다. 이덕무는 18세기 조선의 진보적인 北學派문학의 대표적 인물이며 저명한 실학파 학자이자 박지원의 학생이며, 전통적인 화이관념을 반대하고 적극적으로 청조의 선진문화를 받아들이자고 주장했던 인물로 《全韻玉篇》(1796年刊行)을 간행하면서 모기령의 《古今通韻》, 《古今定韻》, 《韻學要指》등을 서목에 인용하였다고 소개했다. 한국 학자들의 연구로는 金弼洙와 柳晟俊 등을 들었는데, 김필수의 연구는 모기령의 《仲氏易》에 관한 연구이고, 유성준의 연구는 이덕무의 《청비록》 중에 언급되는 모기령에 관한 견해를 언급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 이처럼 모기령에 관한 연구를 살펴본 이유는 현재에 이루어진 중국학자 모기령에 대한 연구 경향과 조선 학자 이기경이 《모서하집》을 살펴보고 내린 견해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 것에서 비롯됐다. 모서하는 《明史》를 찬수하는 관직을 얻을 만큼 漢學에 탁월하고 경집과 문집도 여러 권 있으며 《易》에 밝았다. 그러한 학자의 문집이 목산의 눈앞에 있었지만 모기령의 학문적 공적은 뒤로한 채 《辨忠臣不徒死文》이라는 문장을 찾아내어 대명의리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인해 그의 학문적 성과는 모두 헛되이 여겨져 버렸다. 학문적 견해를 결정짓는 요소는 실질적 내용의 호불호를 떠나 인품적 요소가 매우 중요시하게 판단됨을 알 수 있는 자료이자, 그 인품적 요소의 호불호는 또다시 대명의리의 준수여부를 놓고 판단되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기록이다.

III. 결론

본문에서 중국 도서에 관한 목산의 다양한 견해들을 살펴보았다. 중국 도서에 관한 목산의 견해를 긍정과 부정의 평가로 분류하여 살펴보았으나, 분류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단순히 부정과 긍정의 의미만을 내포하고 있다고 간과할 수는 없었다. 목산 자신도 이전의 연행 선배들의 연행록을 통해 중국을 배우고, 중화를 배우고, 사상과 철학을 면밀히 하였을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자신의 연행록도 향후 어떠한 역할과 가치를 지닐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목산이 원하던 원치 않든 그 시대의 사상적 흐름이 조선의 성리학에 대한 재평가가 시도 되려하고 있었던 것을 인지하고 있었을 만한 인물이었기에, 주자학의 관점으로 보기에 부정적인 양명학적 기치의 도서들에 관한 견해 피력도 예외 없이 남겨두게 되었을 것이다.

명나라가 청나라에 의해 교체되는 역사적 사건에 대해 조선 지식인들이 인정하는 시각은 시기별로 달랐다. 다시 말해, 대명의를 지키기 위해 만주족이 통치하는 청나라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감과 부정적 인식이 주를 이루어 ‘복벌’의식을 형성하다가, 현실적 역사의식을 가지고 ‘복학’의식으로 유도되어 조선의 실학을 완성시키는데 청의 학문을 전적으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조선의 지식인들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매번 반드시 균형 잡힌 인식만을 지니고 있을 수만은 없었을 것이다. 특히 중국을 오가며 실질적으로 중국을 경험하게 되는 연행사신들은 더욱더 생생한 모순과 갈등을 대면하게 된다. ‘대명의를’, ‘중화주의’, ‘사대의식’, ‘승명반청’적 인식으로 오랑캐인 청나라에 사대하는 것을 치욕으로 여기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명나라의 내부적 모순을 비판하며 만주족에게 중화를 넘길 수밖에 없었음을 인정하는 구조를 띄었다. 따라서 청나라의 선진화된 문물과 각종 제도의 우수성 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각이 공존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조선 지식인들의 중국에 대한 시각과 비판은 청나라가 중화이든 중화

가 아닌든 간에 화이사상을 근간에 두고 조선의 유학, 특히 성리학이 형성한 조선의 구조대로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선시 되었다. 이러한 시각은 당시 존재하고 있는 중국 문화를 조선의 관점으로 변용하였다. 그리고는 온전히 청나라가 이루어 놓은 문화를 접해도 그것을 중국문화라 인식하지 않고 왜곡시키고 부정하며 중국문화가 결여되어 있음을 한탄하였다.

목산의 중국 도서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고 필자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목산이 이미 알고 있는 도서에 관해선 긍정이나 부정의 견해를 피력하지 않고 접촉한 도서를 해제하듯 간추려 놓았다. 이는 연행기록을 작성할 때 기존에 알고 있었던 내용을 가감없이 기록하였거나 조선으로 돌아와서 다른 자료를 통해 정리해 넣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어떤 가능성이든 이미 조선에 소개되어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었던 도서에 관해서는 굳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거나 견해를 피력할 만큼 새로운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들로 여길 수 있다. 둘째, 사행에서 처음 접하게 된 도서들에 대해서는 작자와 도서의 내용에 대해 병행하여 설명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는데, 연행 사행에서 처음 접한 도서에 대해 긍정적 견해의 이유와 부정적 견해를 내리는 이유를 분명히 명시하였다. 목산이 도서를 평가하는 가장 큰 기준은 주자를 핵심으로 하는 정통 성리학과 유교적 의미명분의 여부에 달려있었다. 《이탁오유사》, 《주자만년전론》, 《모서하문집》 등 육왕학적 색채가 농후하고 반주자학적 사상의 도서들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치부하였다. 또한 지리적 중화사상이 아닌 문화적 중화사상을 중시하는 소중화사상이 근저가 되어 대명의리의 준수여부를 따지고, 자신이 알고 있던 조선의 성리학에 위배되지 않아야 했다. 이는 곧 정주이학에 관해 부정적이거나 공격적이어서는 안되고 저자의 사상이 복명의 기치를 든 대명의 후예인지를 따져 묻고서야 긍정과 부정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이러한 목산의 중국도서에 관한 비판적 평가는 목산 개인의 수용 양상임과 동시에 조선 후기 중국 도서를 수용하는 조선 지식인들의 학술 수용의 대표적 양상으로도 볼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셋째, 목산이 도서를 접하게 되는 경로는 남경의 하급관리

가 소장한 서목을 보거나 江西 출신 서반을 통해서 구입 혹은 서점에서 도서목록을 구하여 서반을 시켜서 빌려보는 방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은 목산이 《음빙행정력》에서 중국 도서에 관해 평가한 내용을 통해 당시 조선 지식인의 중국 도서에 관한 수용태도를 검토한 뒤 목산을 포함한 그 전후의 조선 지식인들의 동일한 도서에 대한 견해를 비교 고찰하여 조선시대 중국 도서와 중국학에 대해 인식하는 태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했다. 이러한 연구는 중국 학문이 조선에 전파되는 시기별 수용 태도를 부분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도서가 조선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수용되는 양상 또한 고찰할 수 있는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姜世晃, 《豹菴遺稿》 권5, 장서각 소장본.
- 김미순, 《《庚子燕行雜識》를 통해 본 李宜顯의 淸 文物 認識》,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신익철 편저, 《연행사와 북경천주당》, 서울, 보고서, 2013.
- 신익철 외 편역, 《18세기 연행록 기사 집성, 서적·서화편》, 경기도,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4.
- 안정훈, 〈中國文學과 目錄學에서의 類書의 자리〉, 《중국문학》 40권, 2003.
- 이경훈, 〈《음빙행정력》小考〉, 《중국학논총》 제56집, 2017.
- 이기경, 《木山藁》영인본, 전주, 세원사, 1990.
- 이기경, 《木山藁》, 宗孫 李柱成氏家 保藏本
- 이영춘 외 6명, 《1756년의 북경이야기(목산의 《음빙행정력 飲水行程曆》 역주)》, 경기도, 교육과학사, 2016.
- 임기중, 《燕行錄研究層位》, 서울, 학고방, 2014.
- 임홍태, 〈李紱의 朱陸觀 연구-《주자만년전론》을 중심으로〉, 한국철학논

집 37, 2013.

정우봉, <조선후기 지식인의 陳繼儒 수용과 그 의미>, 《韓國漢文學研究》 제57집, 2014.

정광충, 《연행일록》, 연행록선집, 권 39,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76.

한국문화연구소 연행록해제팀, 《국학고전 연행록해제1》, 한국문화연구소, 2003.

罗积勇、张秋娥, <<類編標註文公先生經濟文衡>編者考辨>, 中國 長江學術, 2010.

宋鳳林, <<路史>의文獻價値>, 天津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2.

呂振宇, <<經濟文衡>版本述考>, 《歷史文獻研究》 01期, 2014.

朱仙林, <羅泌<路史>版本考辨>, 《古籍整理研究學刊》, 2012.

[기타 웹사이트류]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KRPIA, <http://www.krpia.co.kr/>

< Abstract >

This study reviews the acceptance attitude of Chosun intellectuals about the Chinese books at that time through the assessment of Chinese books by Moksan in Ŭmbinghaengjŏngnyŏk, examines their views on the same books before and after them, including him and examine the changes in attitudes toward understanding Chinese books and the Chinese studies during the Chosun Dynasty.

After looking through the records of the Chinese books of Moksan, I came to the following conclusion.

First, when it comes to the books already have known to the Moksan, it has been summarized as if it were to release the books it had contacted without any expressing a positive or negative opinion. They did not feel the need to express their views on books that had already been introduced to Chosun and could only be known by their titles, or were excluded from the list of new interests to express theirs.

Second, he expressed his views on the books he first encountered in traveling, explaining both the contents of the author and the book in parallel. The criteria for him to evaluating books in the past depended on the importance of orthodox Neo-Confucianism(性理學) and Confucian significance with Chu Hsi(朱子), at the core. Rich colored in Yugwanghak(陸王學), books of anti-Chu Hsi studies were dismissed as worthless. He also expressed his views of affirmation and negation only when asked whether the author's ideas were descendants of Royal's command with the banner of ones' mission's report, and that they should be based on the observance of fidelity of Royal's command, the source of small Sinocentrism(小中華思想) that of importance to cultural Chinese ideas, not geographical Chinese ones, and should not violate Chosun's principles of Neo-Confucianism, negate and attack on the Cheng-Zhu Confucianism(程朱理學) as they were known.

Third, the route through that Moksan came into contact with the books was by looking at the calligraphy owned by a subordinate officer of Nanjing, purchasing it through a librarian from Jiangxi, or obtaining a book list from a bookstore and borrowing it through the librarian.

To conclude, this study will not only provide a partial picture of the attitude of accepting Chinese books per period, but it will also be meaningful to examine how Chinese studies are accept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situation of Chosun.

Key Words : 木山 李基敬(Moksan Lee Gi-gyeong), 《飲氷行程曆》(Ŭm binghaengjŏngnyŏk), 燕行(Yŏnhaeng, Travel), 중국 도서 (Chinese Books), 수용 태도(attitudes of acceptance)

